

방송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 모니터링*

류혜숙** · 양일선*** · 김현숙**§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The Monitoring of Information about Food and Nutrition Presented Throughout Various Television Broadcast Media*

Ryu, Hea Sook** · Yang, Il-Sun*** · Kim, Hyun Sook**§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formation about food and nutrition presented through the television broadcast media, with the aim of finding out the optimal communication method for supplying the general public with accurate information. To perform this study, a total of sixteen monitoring people were recruited and trained before and during the study. Five domestic TV channels were selected to be monitored, and the total monitoring period was six months. For maximum efficiency, the monitoring people were assigned to 8 team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total reported cases of information about food and nutrition were 237, of which about 30% were judged appropriate and 70% as inappropriate. Second, classifying each case by program type, information programs made up the highest portion at 82 cases (34.6%), cooking programs accounted for 76 cases (32.1%), news programs for 40 cases (16.9%),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7 cases (3.0%).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greatest amount of incorrect information was found in dramas, followed by entertainment, information, cooking and news programs. Third, classifying each case by theme of contents monitored, meal preparation and cookery made up the highest portion at 86 cases (36.3%), foods accounted for 67 cases (28.3%), disease and diet-therapy for 40 cases (16.9%), eating habits for 31 cases (13.1%), and diet and fitness for 13 cases (5.5%). Incorrect information was conveyed most often on the themes of food habits, foods, disease and diet-therapy, cookery, and diet and fitness. Fourth, classifying each case by channel, Cable TV had the highest frequency at 72 cases (30.4%), MBC had 51 cases (21.5%), SBS had 43 cases (18.1%), KBS1 had 41 cases (17.3%) and KBS2 had 30 cases (12.7%). In conclusion, systematic monitoring should be continued to reduce the frequency of incorrect information being broadcast and to help ensure that accurate information is conveyed to the general public. Moreover, there should be a system of cooper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help broadcast production teams establish a strategic program. Finally, it is essential to organize an advisory team by promoting links between the mass media and specialists in the field, and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on nutrition to help ensure the communication of accurate information on food and nutrition. (*Korean J Nutrition* 36(5): 508 ~ 514, 2003)

KEY WORDS : monitoring, television broadcast, media , information, food and nutrition.

서 론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생활이다.¹⁾ 올바른 식생활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 해주며, 이는 곧 건강한 신체를 유지시켜 건강한 삶을 가

능케 한다. 따라서 건강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함께 증대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건강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²⁾

우리나라 TV수상기 보유대수가 현재 가구당 1.5대 이상이고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TV시청시간이 약 3시간임을³⁾ 고려할 때 TV는 국민건강에 매우 영향력이 큰 영양교육 매체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TV광고의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유아기의 경우 매체를 통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유아기의 식습관과 영양은 성인건강

접수일 : 2003년 2월 11일

채택일 : 2003년 5월 29일

*This study was supported by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Project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의 밀거름이 된다⁴⁾는 점에서 어린이들에 있어 방송매체의 식생활 정보 효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들어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영양정보도 넘치고 있는 현실이다.⁵⁾ 이와같이 매체를 통한 올바른 영양정보의 활용은⁶⁾ 국민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잇수가 되고 있다.

영양교육이란 개개인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영양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지식 태도 훈련 (knowledge attitude practice) 과정이라 볼 수 있다.⁷⁾ 하지만 이러한 잇점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 국민건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또한 심각하다.⁸⁾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매체 정보의 평가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그 요구도 광범위하고 다양해져 서비스향상, 국민 보건향상 등 삶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⁹⁾ 매체를 통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는 그릇된 영양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또 현혹되기 쉬운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영양의 중요성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10,11)}

따라서 대중매체에 나타난 국민 건강 관련 정보의 내용은 바람직한 국민건강 의식 정착 또는 실천을 위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올바른 국민 건강 관련 정보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식생활 행동은 여러 가지를 통해 영향을 받지만 각종 매체를 통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 새로운 건강정보의 습득등 미디어를 통한 영양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다. 하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식품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¹²⁾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지식은 적은편이며 따라서 매스컴에 나타나는 정보와 광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과신하는 경향이 크다. 식생활이나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이 정확성과 균형성, 객관성,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으면¹³⁾ 이러한 역기능의 폐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V 보도분야 가운데 전문보도 분야 중 한 영역인 식품영양정보의 정확성에 관해 실제 TV속에 나타나는 식품영양 정보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와 채널별 경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모니터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식품영양정보의 매스컴에 대한 이미지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거에서 조사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TV속에 식품영양 정보는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부정확하게 전달되

어지는 사례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식품영양정보의 주제와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셋째, TV 채널간 유형의 차이와 프로그램 종류별 경향은 어떠한가?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 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위한 매스컴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채널선정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5개의 TV방송사 즉 KBS1, KBS2, MBC, SBS, CABLE (건강, 요리관련 4개 채널)방송을 선정하였으며, 5개 채널에서 방송되는 건강 관련 정보 중에서 식생활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 (모니터링기간)은 1999년 3월 1일에서 1999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방송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송시간대는 전 시간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모니터링 팀 구성 및 교육

팀 구성은 수도권 5팀 (서울, 경기), 중부권 1팀, 영남권 1팀 (부산), 호남권 1팀 (광주)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2명의 모니터링요원으로 구성되었고 모니터링요원은 식품영양학을 전공중인 4학년학생, 석, 박사과정, 현직영양사, 식품영양학관련 실무경력자로 구성되었다.

모니터링 요원의 교육은 모니터 실시 전 한달 동안 예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훈련기간을 거쳐 모니터링이 시행되는 전 기간에는 월 1회 팀별 교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즉 화면관찰단계 → 화면분석단계 → 화면평가단계 → 제언 및 개선방안제시단계 → 토론단계 → 보고서작성단계의 총 6개 단계로 나누어 모니터링이 실시되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4월과 7월 두 차례의 중간 평가를 위한 훈련 워크숍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전문가를 초청, 모니터 방법론¹⁴⁾에 의거하여 교육을 강화시켰다.

3. 내용의 평가 유형별 분류 근거

내용의 평가 유형별 분류 근거는 식품영양정보를 다루는 내용들을 크게 부정확한 사례와 긍정적 사례로 구분하여 부정확한 사례로는 과학적 근거불충분, 잘못된 내용전달, 내용설명 미흡등으로 분류하였고, 긍정적 사례로는 구성면 유익한 정보제공, 위생·질병에 대한 경각심 유발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 또한 그 구체적 항목 적용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처 유형별로 결과를 분류 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SAS (Statistic Analysis System)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채널별 보도내용의 분포도 차이와, 프로그램 종류별, 주제별, 채널별 부정확성에 대한 차이의 유의성은 Chi-Square test의 산출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식품영양 정보에 대한 보도내용의 채널별 분석

1) 보도내용의 채널별 분석

식품영양관련 보도의 채널별 분석에서는 Table 2에서와

Table 1. An assessment nomadism of the contents

The analysis nomadism	
1. Enough scientific basis of the subject ?	
2. Clearness of the contents?	
3. Minute explanation about the academic terminology?	
4. No Exaggeration of the contents?	
5.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to the real life?	
6. Optimization of the comparison group?	
7. No violation against law about food sanitation?	
8. Adequacy of the expert selection?	
9. Not excessively amused expression?	
10. Not intentionally advertised about specific foods?	
11. No over-application of the animal experiments to the human being?	
12. Adequacy about the information?	

Table 2. Number of reporting cases by channels

Channel	Numbers of monitoring	Rates (%)
KBS1	41	17.3
KBS2	30	12.7
MBC	51	21.5
SBS	43	18.1
CABLE	72	30.4
Total	237	100.0

Table 3. Number of reports categorized by the subject area

	Food	Cuisine & Cookery	Eating & Habit	Disease & Diet therapy	Fatness & Diet	Total
KBS1	21 (8.9)	3 (1.3)	5 (2.1)	12 (5.1)	0 (0.0)	41 (17.4)
KBS2	9 (3.8)	9 (3.8)	1 (0.4)	9 (3.8)	2 (0.8)	30 (12.6)
MBC	17 (7.2)	15 (6.3)	8 (3.4)	6 (2.5)	5 (2.1)	51 (21.5)
SBS	10 (4.2)	9 (3.8)	15 (6.3)	3 (1.3)	6 (2.5)	43 (18.1)
CABLE	10 (4.2)	50 (21.1)	2 (0.8)	10 (4.2)	0 (0.0)	72 (30.4)
Total	67 (28.3)	86 (36.3)	31 (13.0)	40 (16.9)	13 (5.4)	237 (100.0)

$\chi^2 : 96.893, df : 16, p : 0.001$

같이 CABLE 방송에서 가장 많았고, 이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다매체 경향에 따른 CABLE 채널수의 급증¹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MBC에서 51건, SBS에서 43건, KBS1에서 41건, KBS2에서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2) 채널별로 본 주제별 보도 건수

채널별로 다루어진 주제별 경향은 KBS1과 KBS2, MBC에서는 식품을 주제로 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SBS의 경우 식생활을 주제로한 사례가 높게 나타났으며, CABLE 방송은 요리를 주제로 다룬 내용이 가장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hi^2 = 96.893, df = 16, p = 0.001$).

3) 채널별로 본 부정확한 사례 건수

모니터 결과에 따른 채널별 오류도는 Table 4와 같이 유의성을 보였다 ($\chi^2 = 9.427, df = 4, p = 0.05$). 채널별로 살펴보면 D채널이 총 43건 중 긍정적 사례 6건, 부정확한 사례 37건으로 오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Table 8에서 보는바와 같이 SBS채널에서 오류도가 높은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모니터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서 건강관련 내용을 흥미위주로 다룰 경우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¹⁶⁾을 보여 주는 결과로,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서 식생활관련 정보를 다룰 경우 보다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¹⁷⁾ 그 다음으로 B채널에서는 총 30

Table 4. Classification of the monitored reports by accuracy N (%)

Channel	Classification		Total
	Affirmative	Inaccurate	
A channel	13 (31.7)	28 (68.3)	41 (100.0)
B channel	6 (20.0)	24 (80.0)	30 (100.0)
C channel	18 (35.3)	33 (64.7)	51 (100.0)
D channel	6 (14.0)	86 (86.0)	43 (100.0)
E channel	27 (37.5)	45 (62.5)	72 (100.0)
Total	70 (29.5)	167 (70.5)	237 (100.0)

$\chi^2 : 9.427, df : 4, p : 0.05$

건중 긍정적 사례가 6건, 부정확한 사례가 24건, A채널은 총 41건 중 긍정적 사례가 13건, 부정확한 사례가 28건, C 채널에서는 총 51건 중 긍정적 사례가 18건, 부정확한 사례가 33건, E채널은 총 72건 중 긍정적 사례가 27건, 부정확한 사례가 45건 순으로 요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E채널에서 비교적 오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2. 주제별 분석

1) 보도내용의 주제별 분석

식품영양관련 주제를 식품, 질병 및 식사요법, 음식과 요리, 식생활, 비만 및 다이어트로 분류하고 모니터건수와 백분율 월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음식과 요리가 86건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한 영양사회의 결과인 94년 13.5%, 95년 14%, 96년 20%, 97년 4.5%¹⁸⁾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정원등의 연구에 따른 10.8%¹⁹⁾보다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²⁰⁾ CABLE 방송에서 요리프로그램이 급증한 영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 본연구의 채널별 분류에서 모니터된 비율이 전체의 30.4%로 CABLE 방송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식품이 67건 (28.3%), 질병 및 식사요법이 40건 (16.9%), 식생활 31건 (13.1%), 비만 및 다이어트 13건 (5.5%) 순으로 보도되어, 94~97년 대한영양사회에서 조사한 식품, 질병 및 식사요법, 식생활¹⁸⁾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보경 등의 93~97년에 방송된 식생활관련 보도 내용의 주제별 분포 연구에서 식품, 질병, 음식과 요리, 식습관¹⁹⁾ 순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음식과 요리의 증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치한다.

2) 주제별로 본 부정확한 사례 건수

보도 내용의 주제별 부정확성에 대한 경향 (Table 6)에 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chi^2 = 3.785$, $df = 4$, $p = 0.436$), 식생활을 주제로 다루어진 내용에서 긍정적 사례 6건, 부정확한 사례 25건으로 오류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식품을 내용의 주제로 보도한 사례에서 긍정적

Table 5. Subjects of the monitoring cases

Issues	Number of cases	Rates (%)
Food	67	28.3
Cuisine & Coockey	86	36.3
Eating & Hahit	31	13.1
Disease & Diet theapy	40	16.9
Fatness & Diet	13	5.5
Total	237	100.0

인 보도는 17건이고 부정확한 사례는 50건으로이었으며 질병 및 식사요법은 긍정적 사례 12건, 부정확한 사례 28건, 음식과 요리의 경우 긍정적 30건, 부정확한 사례 56건, 다이어트 및 비만은 긍정적 5건, 부정확한 사례 8건 순이었다.

3. 영역별 분석

1) 보도내용의 영역별 분석

영역별로 분석해본 TV속의 식품영양관련 정보의 보도 사례는 정보, 요리프로그램에서 주로 조사 되어졌던 예년에 비해 더욱 다양한 분야,²¹⁾ 즉 드라마나 대담프로, 코미디등 오락프로¹³⁾ 등에서 까지 다루어지고 있어, 과거의 전문 정보프로그램에서 다루지던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²²⁾ 모니터된 사례 내용별로 보면 (Table 7) 여전히 정보프로그램에서 82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¹⁸⁾ 다음으로 요리 프로그램에서 76건으로 이는 급격히 늘어난 CABLE 방송에서의 요리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뉴스 40건, 오락프로그램 32건, 드라마 7건순으로 모니터되어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 영역, 특히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서까지 식품영양 관련 정보가 다루지고 있음을^{13,23)} 보여 주는 결과이다.

2) 영역별로 본 채널별 경향

프로그램 영역에 따른 채널별 보도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chi^2 = 149.625$, $df = 16$, $p = 0.001$).

Table 6. Accuracy of the informations classified by subjects N(%)

Issues	Classification		Total
	Affirmative	Inaccurate	
Food	17 (25.4)	50 (74.6)	67 (100.0)
Cuisine & Coockey	30 (34.9)	56 (65.1)	86 (100.0)
Eating hahit	6 (19.3)	25 (80.7)	31 (100.0)
Disease & Diet theapy	12 (30.0)	28 (70.0)	40 (100.0)
Fatness & Diet	5 (38.5)	8 (61.5)	13 (100.0)
Total	70 (29.5)	167 (70.5)	237 (100.0)

$\chi^2 : 3.785$, $df : 4$, $p : 0.436$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Table 7. Classification of the monitored programs

Program	Number of cases	Rates (%)
Information program	82	34.6
News program	40	16.9
Entertainment program	32	13.5
Drama	7	3.0
Cooking program	76	32.1
Total	237	100.0

Table 8. A channel monitor number of cases which sees as a program area

						N (%)
	KBS1	KBS2	MBC	SBS	CABLE	Total
Information program	29 (12.2)	12 (5.1)	12 (5.1)	18 (7.6)	11 (4.8)	82 (34.8)
News program	12 (5.1)	2 (0.8)	17 (7.1)	8 (3.4)	1 (0.4)	40 (16.8)
Entertainment program	0 (0.0)	7 (3.0)	10 (4.2)	10 (4.2)	5 (2.1)	32 (13.5)
Drama	0 (0.0)	0 (0.0)	2 (0.8)	5 (2.1)	0 (0.0)	7 (2.9)
Cooking program	0 (0.0)	9 (3.8)	10 (4.2)	2 (0.8)	55 (23.2)	76 (32.0)
Total	41 (17.3)	30 (12.7)	51 (21.4)	43 (18.1)	72 (30.5)	237 (100.0)

χ^2 : 149.625, df : 16, p : 0.001

정보프로그램에서는 KBS1의 내용이 가장 많이 모니터 되었고, 뉴스프로그램은 MBC의 사례가 많았으며,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는 SBS의 내용이 가장 많이 모니터 되었고, 요리프로그램은 CABLE 방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었다.

3) 프로그램 영역별 부정확성

프로그램 영역별로 본 오류의 경향은 Table 9와 같이 유의성을 보였다 ($\chi^2 = 20.259$, df = 4, p = 0.001). 내용을 살펴보면, 드라마에서 총 7건의 모니터 내용 중 7건이 부정확한 사례로 가장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오락프로그램 총 32건의 모니터 건수 중에서 긍정적 사례가 4건, 부정확한 사례가 28건, 정보프로그램 총 82건 중 긍정적 사례 17건, 부정확한 사례 65건, 요리프로그램 총 76건 중 긍정적 사례 30건, 부정확한 사례 46건, 뉴스프로그램 총 40건 중 긍정적인 사례 19건, 부정확한 사례 21건 순이었다. 드라마의 경우 오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드라마나 코미디물 등의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이미지³⁾가 차츰 왜곡되기 쉬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건강 관련 정보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의 흥미제고라는 차원에서만 다룰때 생겨나는 문제점인 것이다.¹⁶⁾ 반면 뉴스프로그램에서 부정확한 사례가 가장 적은 것은 식품영양정보가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비교적 올바르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평가 유형별 사례 분석

모니터 된 내용의 유형별 분석에서 총 237건의 사례 중 시청자들에게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긍정적인 사례가 70건으로 전체의 29.5%로 나타났고,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167건으로 70.5% 이었다 (Table 10).

1) 긍정적 보도사례의 유형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례의 분류는 방송 구성면의 우수성, 위생이나 질병 등에 대한 경각심유발, 유익한 정보제공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용별 사례를 보면 첫째, 상세한 설명, 정

Table 9.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lassified by program

Channel	Classification		Total
	Affirmative	Inaccurate	
Information program	17 (20.7)	65 (79.3)	82 (100.0)
News program	19 (47.5)	21 (52.5)	40 (100.0)
Eentertainment program	4 (12.5)	28 (87.5)	32 (100.0)
Drama	0 (0.0)	7 (100)	7 (100.0)
Cooking program	30 (39.5)	46 (60.5)	76 (100.0)
Total	70 (29.5)	167 (70.5)	237 (100.0)

χ^2 : 20.259, df : 4, p : 0.001

리, 반복, 자막 등으로 이해를 극대화시키는 구성상 긍정적 평가의 경우로 조리법의 자세한 제시나, 상세한 자막처리, 연구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저널명 인용,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영양전문가이 조언을 함께 보도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 예 등이다. 둘째 위생이나 질병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여름철 식중독에 대해 주의와 예방법을 알려주고, 유통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지적, 요즘 아동들의 식생활 문제점 언급, 소아비만에 대한 심각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사례들이다. 셋째, 유익한 정보제공의 예로서 '일본의 미소와 한국 된장 속의 키토올리고당 비교'를 통해 우리식품의 우수성을 알려 수입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선호를 바로 잡아주는 등의 긍정적 사례를 들 수 있다.

2) 부정확한 보도사례의 유형

부정확한 보도 유형을 내용별로 보면 첫째, 과학적 근거 불충분 사례로는 근거 없는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예로서 흙으로 만든 흙 칼국수를 영양학적인 접근 없이 광물 분석만으로 영양식으로 보도한 사례, '개구리 다리 튀김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용어 및 내용설명이 부족한 사례로 변비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식습관'을 변비의 원인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식습관에 대한 설명이 따르지 않은 사례, 음식 재료 설명에서 '적당히' 등으로 보도된 사례 등이다. 셋째, 잘못된 내용전달의 예로서 "짜장면과 불

Table 10. Analysis about assessment nomadism of the content

N (%)

The grouping	The analysis nomadism	Number of cases
Inappropriate	1. Insufficient scientific basis	26 (10.9)
	2. Unclearness of contents	22 (9.3)
	3. Lack of scientific explanation	40 (16.9)
	4. Over-amused expression	22 (9.3)
	5. Lack of alternative solution	16 (6.7)
	6. Over-application of scientific results	4 (1.7)
	7. Inadequacy of special selection	8 (3.4)
	8. Lack of specialist knowledge	7 (2.9)
	9. Over-application of the animal experiment to the human being	1 (0.4)
	10. Violation against food sanitation law	1 (0.4)
	11. Intentional advertisement about specific item	4 (1.7)
	12. Dignity impairment about nutrition and/or nutrition	1 (0.4)
	13. Grossness of program construction	7 (3.0)
	14. The others	8 (3.4)
Subtotal		167 (70.5)
Affirmative	1. Excellence of program construction	26 (11.0)
	2. Awareness of food sanitation and health concern	13 (5.5)
	3. Provision of useful knowledge	31 (13.0)
Subtotal		70 (29.5)
Total		237 (100)

고기는 같은 열량을 갖는다”는 등 식품의 영양성분 비교 시 비교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와 “냉장고 속에서 음식을 보관하면 미생물이 사멸한다”는 잘못된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사례 등이다. 이밖에도 ‘지나치게 오락적이다’가 22건, ‘실생활에 구체적 대안제시미흡’이 16건, ‘전문가 섭외의 부적절성’ 8건, ‘관련 연사로 출연한 전문가의 실수나 전문성부족이’ 7건, ‘구성상의 문제’가 7건, ‘식품의 효능 등에 관한 과장’이 4건, ‘특정식품 및 업소의 간접광고’ 4건,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동일적용’이 1건,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1건, ‘영양사, 식품영양에 대한 이미지 실추사례’가 1건, 기타 8건의 사례로 분류되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방송매체에 의한 식품영양정보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여 식품영양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TV 5개 채널을 중심으로 1999년 3월부터 8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를 통하여 모니터링된 총 사례건수는 237건으로, 그 중 내용의 정확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70건, 반면 부정확하다고 판정된 사례가 167건으로 모니터링건수에 따른 식품영양정보의 부정확도는 70.5% 이었다.

2) 각각의 모니터내용을 프로그램 영역별로 보면 정보프로그램이 82건 (34.6%)으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 요리 프로그램 76건 (32.1%), 뉴스프로그램 40건 (16.9%), 오락프로그램 32건 (13.5%), 드라마에서 7건 (3.0%)순으로 보도 되었다. 이들의 부정확도 분석에서는 드라마에서 가장 오류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오락프로그램, 정보프로그램, 요리프로그램, 뉴스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나 뉴스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식품영양정보에 관한 내용의 오류도가 가장 낮았다.

3) 보도된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했을 때, 음식과 요리를 다룬 내용이 86건 (36.3%), 식품 67건 (28.3%), 질병 및 식사요법 40건 (16.9%), 식생활 31건 (13.1%), 다이어트 및 비만에 관한 내용 13건 (5.5%)순이었다. 주제별 부정확도는 식생활보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품, 질병 및 식사요법, 음식과 요리, 비만 및 다이어트순의 경향을 보였다.

4) 채널별 보도 빈도는 CABLE 방송이 72건 (30.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MBC 51건 (21.5%), SBS 43건 (18.1%), KBS1 41건 (17.3%), KBS2 30건 (12.7%)순이었다. 모니터 결과에 따른 채널별 오류의 경향은 D채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B채널, A채널, C채널, E채널 순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안 사항으로는 첫째, 건강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내

용만을 보도해야 하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식생활 관련 정보를 다룰 경우 지나치게 흥미위주의 오락적인 묘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올바른 정보를 확산하기 위한 제언으로 방송사 내부에서는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작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의학이나 법률 관련 분야에서 이미 구성된 것처럼 식품영양 전문자문단 구성이 이루어짐으로서 이들을 통한 전문지식이 밀거름 역할을 함으로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식품영양관련 분야에서는 첫째, 국민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사후 감시활동, 즉 모니터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방송사 내부의 PD나 작가와의 공조 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빠른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영양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매체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영양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와 전문가간의 연계가 중요하며, 아울러 영양사회학 또는 건강 사회학이라는 틀 안에서 '영양과 대중매체', '영양커뮤니케이션' 등의 강의 개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올바른 식품영양정보 전달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Literature cited

- 1) Kang HJ, Kim KM, Kim KJ, Ryu ES. Effect-Evaluation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the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in Kindergarten. *Korean J Nutr* 34(2): 230-240, 2001
- 2) 김초일. 영양관련 보도의 현실, 한국영양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p.14-16, 1998
- 3) 김기태. 대중매체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한국영양학회 춘계학술 초록집, 1998
- 4) Park EJ, Moon HK, Lee SS, Park WH. A Study on the Food Habit and Nutritional Status of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Korean J Nutr* 34(2): 188-197, 2001
- 5) Ly SY, Lee JW, Seo JS, Kim KE. A Need Assessment to Develop Website Contents on Nutritional Information and Counseling for Teenagers. *Korea J Community Nutrition* 7(5): 664-674, 2002
- 6) You EY, Sung HI, Kwak JO, Chang KJ. The Dietary Intakes and Internet Searches Regarding by Disease in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a Nutrition Education Web Class. *Korea J Community Nutrition* 7(5): 696-704, 2002
- 7) Yang IS, Lee JM, Chae IS. Nutrition knowledge and attitude analysis of elderly people for the development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4(1): 76-87, 1998
- 8) 공용배. 인쇄 매체에 나타난 불건전한 식생활 관련 정보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영양사회 모니터 교육, 1997
- 9) 배호순. 프로그램 평가론, 원미사, 1994
- 10) Mackenzie SB. The role of attention in mediating the effect of advertising on attribute importa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 174-195, 1986
- 11) Kim HS. Television Food Advertisements: Review and Recommendation,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11(4): 507-515, 1996
- 12) 대한영양사회 모니터 교육, 1997
- 13) 강상현. 국민건강 관련정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대한영양사회 식품영양 모니터링 심포지엄, 17-19, 1999
- 14) 김기태. 대중매체 모니터 방법론. 대한영양사회 모니터 교육, 1997.
- 15) 민영복. 식생활 관련 불건전한 방송사예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영양사회 모니터 교육, 1997
- 16) 김기태. 국민건강관련 정보의 역할과 중요성. 식품, 영양 모니터링 심포지엄 대한영양사회, pp.8-16, 1999
- 17) 김현숙. 방송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 대한영양사회 식품영양모니터링 심포지엄, pp.23-33, 1999
- 18) 대한 영양사회, 언론 모니터 활동 보고서, 1995, 1996, 1997
- 19) Lee JW, Lee Bk. Analyzing the Producer's Attitudes toward Specialist's Advice and the Panelist Constitution of Nutrition-related TV Program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3(2): 317-328, 1998
- 20) 안경주. 국내 주요 일간지 환경기사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21) Lee JW, Lee Bk. Examination about the Television's Role of Nutrition Education through Content Analysis of Nutrition-related Program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3(4): 642-654, 1998.
- 22) 방송위원회, 91 방송편성, 정책위원회 종합보고서, pp1-87, 1992
- 23) 박용주. 방송매체에 나타난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토의. 대한영양사회 식품영양 모니터링 심포지엄, pp.49-51, 1999